

사람 세계

격 월 간 발 행
2022/2023.12/1
vol.293



www.hanbeot.org

지난 한 해,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끊임없이 도와주신 님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온갖 물가가 올라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저희 한뼘도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님의 알뜰한 기부금은
눈물 같은 위안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코로나의 거리두기는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가장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이들에게 만남과 사랑은 날마다 먹어야 할 음식과 같은데 말입니다.
이제 봄바람이 불면 마스크라도 뗄 수 있을까요?
서로 얼굴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19를 거치며
'거리두기'가 주는 냉정을 보았습니다.
혼자 행복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 솟는 새 해 맞으시기를 빕니다.



“지난 해 한벗은
이런 사업을
펼쳤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라고 조심스레 뇌이며 닫혔던 문을 열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변함없는 기부회원들의 뒷심 덕이었습니다.

부 서 별	서비스 구분	내 용
재단본부	미안마 지원	어린이잡지 기증, 12,000부(월 1,000부)
		휠체어 10대, 유아차 126대 기증
		기부금 보육원 2곳, 200만원. 장애인협회 120만원
		쿠데타 희생자 등 구호금 76만원
		그림그리기 용품 180세트
	미안마 지부 운영(직원 1명)	
	장애인여행지원	장애인과 보조인 63명(서해안, 동해안/6회)
	휠체어 무상대여	국내 및 체류 외국인 15명
장애인버스 대여	11회, 장애인 51명	
전동휠체어 지원	조선족 장애인 3명	
피부미용서비스	7월~12월, 37명 / 월 1회(한국미용학회 피부미용위원회 봉사대)	
한벗등지	장애인거주시설	뇌병변복합장애인 10명 거주, 24시간 주야간 보호, 마포구 성산동 소재.
한벗주간보호	장애인주간보호실	뇌병변복합장애인 10명 주간 이용, 7월부터 전원 출석. 안마, 요리 같은 실내 활동
종합복지관	고양시지속 종합복지관	고양시 덕양구 지족동 임대아파트 단지 내 국민임대 750세대, 영구임대 632세대 합 1,380세대 주민 약 3,800명. 지난 7월 개관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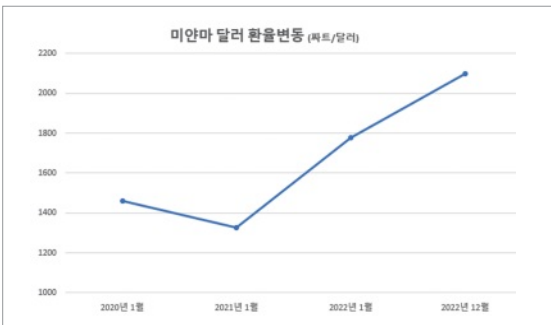
※ 2022년도 결산보고는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2년 10개월 만에 다시 가본 미얀마

지난 2020년 1월 다녀온 후 2년 10개월 만인 11월초 방문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2만명, 군부 쿠데타에 항거한 젊은이 2천명이 죽고 1만5천명이 감금되었다. 내전에 따른 난민 수십만 명이 생겨났다. 슬픔에 젖은 가슴 아픈 나라로 변해 있었다.

아직도 비상계엄

최대 도시 양곤의 거리검문은 사라졌지만 경찰을 동원해 군부대를 지키느라 치안에 구멍이 생겨 좀도둑과 강도가 빈발한다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반증이다.



물가폭등과 궁핍

물가가 전에 비해 60% 넘게 오르고 있다. 기름 값은 4배나 폭등했다. 값싼 노동력을 보고 들어온 외국기업이 발을 끊어 달러(\$)가 귀해지자, 공산품을 들여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나라, 없는 사람들만 죽어난다. 불심 깊은 나라에서 사찰까지 도둑이 든다.

전기로 안 내기 운동

아웅산 수지가 집권하던 때는 전기를 24시간 공급하더니 지금은 8시간 제한송전이다. 쿠데타에 항의하기 위해 시민들이 전기로 안 내기 운동을 벌인데 따른 군부의 보복.



보육원 아이들

한뼘이 돕는 빈민지역 달라(Dalla) 사원 학교생은 1,100명이다. 하나같이 월 1만원의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정규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이다. 또 다른 한 곳인 '핀야미' 사원학교생은 400명, 이 중 100명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거리 비닐을 주워 생계에 보태고 있다. 물가가 올라 살기 어려워지자 5~6살 아이들까지 절에 맡기고 있단다. 이들 사원학교 교사봉급은 우리 돈 44,000원. 쿠데타의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과 여성이다.

국내 최고 하모니카연주자 이혜봉 선생 미얀마 방문



상처 입은 나라에 하모니카 소리를!

하모니카 연주자 이혜봉 선생이 1월말, 양곤의 가난한 동네에 있는 사원 학교 2곳을 찾아가 하모니카 연주회를 갖습니다.



선생은 지난 1983년, 소록도 맹인한센병환자에게 하모니카를 지도해 감격의 서울공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모니카 300만원 어치를 선물하고 연주와 지도를 해주십니다.

소록도 맹인환자 하모니카합주단
국회연주.



‘달라(Dalla)’ 사원학교 어린이합창단을 만듭니다

2020년초 ‘미얀마방정환기금’ 회원인 춘천의 음악인 민성숙 선생이 깜짝 놀랄 제안을 했습니다. 양곤의 가난한 동네 달라사원학교에 합창단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곧바로 코로나19와 쿠데타로 가지 못했지요. 선생은 2013년, 미얀마장애인을 춘천으로 초청하기도 했고 다섯 차례나 미얀마로 가서 악기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선생은 올 6월, 미얀마로 떠납니다. 이제 미얀마 최초의 어린이합창단이 생깁니다.

그림그리기 대회 가져

1월말 ‘달라’와 ‘핀냐미’ 사원학교에서 그림그리기대회를 가집니다. 학생 500명이 참여합니다. 함께 가실 분이나, 약간의 시상금 기부해주실 분은 연락주세요.



스텔라 여사의 그네

미국 달라스 후원회원 스텔라 여사가 미얀마고아원을 위해 \$500을 보내오셨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님은 한뼘 외에도 10여 곳에 기부하고 계십니다. 이 고마운 성금으로 양곤 변두리의 핀냐미 사원학교에 그네를 달아줍니다. 아이들 400명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주간보호실 소식

2022년 안녕, 크리스마스 파티

올 크리스마스 파티는 어느 때와 달리 특별했다

먼저 2년 넘는 코로나19의 횡포를 무사히 견뎌낸, 자랑스러운 우리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새로운 주방 선생님이 오시어 한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이전의 반갑고 고마운 봉사학생들도 돌아왔다. 또 새로 오신 안마 서비스 선생님은 따뜻한 방에서 다정한 아버님처럼 식구들의 몸을 풀어주신다.

이젠 식구들의 줄어든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산책과 나들이도 가질 참이다.



파티 풍경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기로 했다. 기훈 씨는 전날 미리 주문한 초밥, 재호 씨는 먹고 싶었던 미국식 핫도그와 피자, 윤환 씨는 본인의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어필한 치킨까지 주문해 상을 차렸다.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런 파티 자주 해요.” 군사령관 재호 씨의 명령.

보내주신 선물 맛있게 먹었습니다

- 우리금융지주 : 차림이불 4매, 베게커버(8개), 겨울담요(4개)
- 오은주 이용자 보호자 : 계란 1봉지 • 한효승 이용자 보호자 : 떡국떡 4박스
- 푸드뱅크 : 빵 60개, 로션(1박스)

자원봉사 고마워요

숙명여대생 : 박시연, 서가은, 박수빈, 조승현, 이유진, 김수림, 노채영, 김혜원, 김해나, 황서영, 김태은, 김유은, 민서연, 송상은, 김현지, 김세연, 민혜빈

고양ROTC봉사단과 사랑의 김장 나눔



지난 11월 19일, 고양ROTC봉사단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봉사단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보조금과 자체 기부금으로 김치 1,400kg를 담갔는데, 효자동에 사는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 280세대에 전해 냉장고를 꽉 채워드렸습니다.

혼자 사는 분끼리 '동고동락'



지난 11월 1일부터 혼자 사는 분끼리 사귀고 어울리는 '동고동락'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간단한 게임과 자기소개를 나누는 후, 서로를 알기 위한 '마음교실' 과 즐거운 추억을 쌓은 '마을 탐방' 에 이어, 함께 음식을 먹는 '공동체밥상' 으로 마쳤습니다. 같은 단지의 이웃을 넘어 친구로 맺어지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지속종합사회복지관 02)381-8938

한빛등지 소식

“치과는 싫어요!”

“클래식을 틀어줘요”



뇌병변장애가 있는 박주용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가 아파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뿌리가 썩었다며 이를 뽑아버렸습니다. 배는 고프는데 이를 뽑아 음식 먹기가 불편해 얼굴이 찡그려 집니다.
 선생님들이 나를 보고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치료가 많이 남았는데 걱정입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지만용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 소리에 민감합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나는 클래식과 캐럴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캐럴을 틀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엔 무슨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지? 고민이 됩니다.

보내주신 선물, 맛있게 먹었습니다.(10월17일~12월16일)

이용자 가족 / 후원회원 김명규(이용자) 나물, 박주용(이용자) 채소, 배석현(후원자) 사과, 여일구(후원자) 순대, 김영호(이용자) 굴, 이은자(후원자) 간식, 이효진(후원자) 음료수, 익명 계란, 빵, 조흥희(후원자) 간식, 진 권(이용자) 고기, 과일, 생닭, 채한석(후원자) 파베기, 하인석(후원자) 음료수

단체 마사협 냉동식품, 간식 등 마포구청 김치, 부부커피 빵, 부흥세탁소 치킨강정, 서부지법 김치, 쌀, 성산1동주민센터 쌀



3월~5월, 오사카-교토-나라 관광

3년 만에 장애인 해외관광을 다시 시작합니다.

먼저 문이 활짝 열린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최고의 관광명소 교토의 벚꽃 구경도 합니다.

3월말 출발, 4박 5일 일정,

한빛의 해외관광비가 제일 적게 듭니다.

비행기값이 올라 1인당 150만원 정도. 미리 신청하세요.

신청 02)393-0661(최우람 국장)



10월, 나이아가라 폭포

일본 다녀오신 분은 이제부터 여행비를 모아 생애에 잊지 못할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을 준비하세요. 캐나다 토론토 경유 코스로, 나이아가라 폭포와 토론토 관광 명소도 다녀옵니다. 10월 중 출발, 6박 7일 일정, 지금 여행비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호 소식지에 알려 드립니다.



12월, 태국 방콕-파타야

태국은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다음으로 많이 가는 세계적 관광지로 여행비가 적게 듭니다. 싼 물가와 많은 볼거리의 방콕, 밤이 없는 해변 휴양지 파타야 관광. 12월초 출발, 4박5일 일정, 현지 리프트버스 이용, 95만원 예상

신청 : 02)393-0661(최우람 국장)

한 빛 장애인 여행 02)702-1515



재단소식

한벗 45주년 기념식 준비모임 가져

내년에 맞을 45주년기념식을 위해 지난 11월 19일, 재단이사과 옛 회원 30명이 모여 준비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45주년을 도약하는 출발점으로 삼기로 하고 앞으로 재단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지도자 모임(한벗재단 운영위원회)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2차 모임은 1월 28일(토) 오후 4시 재단에서 가집니다. 이 모임에선 앞으로 재단이 펼칠 새로운 복지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족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기증



국내 체류 중인 조선족장애인 근로자 세 분에게 수·전동휠체어 3대를 기증하고 1박 2일 동해안 여행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의 '같이가치' 모금액에 휠체어 기부왕 황기순 선생이 기부금을 희사한 덕분이었지요.

황기순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시아 빈곤국에 휠체어를 기증하는 황기순 선생이 한벗의 유아차 기증 소식을 듣고 특별히 1,000만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기부금으로 내년 봄, 필리핀과 베트남 고엽제 피해 장애아동에게 유아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단소식



한뼘에 다녀가신 산타 할아버지

지난 연말, 한뼘의 어려운 사정을 아신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풀어놓고 가셨답니다. 큰 격려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현금기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휠체어날개달기 회원 : 김경미 20만원, 김선희 30만원, 김일생 50만원, 박현성 10만원
- 지축종합복지관 : 서울경인금속가구협동조합 200만원, 김영미 200만원, 서영호 20만원
- 국기호(감정평가사, 명절마다 선물 주십니다) 100만원과 맛있는 케익과 빵

- 변상순(30년 인연의 소록도간호조무사) 20만원
 - 신반포교회(25년을 이어 기부해주십니다) 50만원
 - 이계준 목사(10만원)
 - 전동휠체어를 받은 조선족 장애인 김옥순, 립정옥, 임경애 각 10만원
 - 최재명(전 경산복지재단 이사장) 100만원
 - 한국산업은행 무역금융실 300만원(유아차 선적비)
 - 성원용(서울대 명예교수)님 올해도 50만원 보내주셨습니다.
 - 물품기증 : 한국석유관리원 중고 컴퓨터 15대
- 중고 컴퓨터 보내주시면 장애인과 미얀마에 전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휠체어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 걷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누구나(외국인 관광객 포함)
- 휠체어 종류 : 수동, 전동, 수전동(여행용)
- 빌리는 기간 : 빌리는 분의 형편에 따라 • 문의 / 02)393-0661. 최우람 국장

- **1월 피부미용서비스** / 1월은 쉬고, 2월 25일(토) 오후 3시, 장애인과 활동보조사. 신청하세요.
- **한뼘회관에도 게스트룸이 있어요.** / 조리기구와 생활용품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행복해지시기를!

22년 10월 ~ 11월 입금내역. ()안은 개별 수

〈미국 텍사스 교민 기부금(달러, 칼린)〉

달러(\$1,900)		칼린(\$820)			
11월	12월	11월		12월	
김윤원 \$200	김윤원 \$200	고향미 \$20	성인숙 \$30	고향미 \$20	이엘리자벳 \$20
문혜숙 \$200	스텔라 \$150	김글라라 \$20	이엘리자벳 \$20	김글라라 \$20	이사벨라 \$20
스텔라 \$150	장덕환 \$200	김은희 \$20	이사벨라 \$20	김은희 \$20	이영란 \$30
장덕환 \$200	지나 김 \$20	김데레사 \$20	이영란 \$20	김데레사 \$20	이정숙 \$20
지나 김 \$20	케니 김 \$30	김헬렌 \$20	이정숙 \$20	김헬렌 \$20	조용순 \$30
케니 김 \$30		김혜중 \$20	조용순 \$20	김혜중 \$20	최정임 \$30
		미영로사 \$20	최정임 \$30	미영로사 \$20	허양욱 \$20
		백수산나 \$20	허양욱 \$20	백수산나 \$20	
		유베로니카 \$20		성인숙 \$30	
\$800	\$600	\$360		\$380	
▶ 특별기부 : 스텔라 \$100		▶ 특별기부 : 최정임 \$100			

송정석(2) 송유재(2) 신동혁(2) 신영길(2)
 심우진(2) 심지은(2) 안병훈(2) 안성진(2)
 안혜정(3) 양일섭(2) 오병철(2) 오상만(2)
 오상분(2) 오성곤(2) 오용석(2) 이건수(2)
 이금주(2) 이동인(2) 이명옥(1) 이명진(2)
 이명철(2) 이미지(2) 이민숙(2) 이삼선(2)
 이상일(2) 이상조(2) 이선미(2) 이성직(2)
 이송균(2) 이수경(2) 이양재(2) 이영근(2)
 이영환(2) 이용현(1) 이외선(2) 이은주(2)
 이재원(2) 이재임/정윤택(2) 이종빈(2)
 이종태(2) 이지영(미아) 이지원(2) 이진훈(2)
 이호성(3) 임경민(2) 임민숙(2) 임옥자(2)
 임정순(2) 장길성(2) 장치복(2) 장철성(2)
 전미희(2) 전민우(2) 전소연(2) 전수익(2)
 전현규(2) 전현민(2) 정규성(2) 정미영(2)
 정봉열(2) 정석환(2) 정성훈(2) 정수연(2)
 정수익(2) 정수화(2) 정승은(2) 정인기(2)
 정창교(2) 정창용(2) 정태영(2) 정현주(2)
 조근제(2) 조기권(2) 조선행(2) 조성숙(2)
 조여숙(2) 조재선(2) 조진영(2) 조화기(2)
 지형근(2) 천성현(2) 최강석(2) 최명선(2)
 최순희(2) 최준수(2) 최태도(2) 최효순(2)
 추정일(2) 태효원(2) 하정희(2) 한경미(2)
 한성진(2) 한혜숙(2) 함정혜(2) 함형덕(2)
 허옥희(2) 홍관선(2) 홍대식(2) 황백화(2)
 황연희(2) 황정일(2)

이상 10,000원

김병석(3) 현영돈(2) 이상 15,000원

(주)인스월드닷컴(2) 강만희(2) 강순화(2)
 강영철(2) 김민주(울산) 김수현(2) 김승태(2)
 김영자(2) 김용신(2) 김인숙(2) 김준희(3)
 김학준(2) 김혜은(2) 김홍(2) 문장렬(2)
 박지웅/유정영(2) 백봉현(2) 백지웅(1)
 서성민(2) 신광재(2) 심경애(2)
 안현국/하미경(2) 양숙(2) 양옥연(2) 양홍대(2)
 오정연(2) 유광주(2) 이광범(2) 이남숙(2)
 이상규(2) 이상권(1) 이서중(2) 이선웅(2)
 이성재(2) 이숙재(2) 이정림(2) 이주형(2)

〈한벗재단〉

문숙자(2) 1,000원
 김계순(덕양2), 김미란(2) 이상 2,000원
 강희춘(2) 3,000원

강난규(2) 강병철(2) 강하늘/장은혜(2)
 강하얀/장은혜(2) 공충식(2) 곽안나(2)
 곽환상(2) 구자균(2) 구재순(2) 김관중(1)
 김대현(2) 김동수(2) 김명문(2) 김미영(2)
 김선희(2) 김시홍(2) 김영희(2) 김유경(2)
 김준혁(2) 김태호(2) 김향미(2) 김혜숙(목동2)
 김혜정(2) 나호연(2) 노수진(2) 류소연(2)
 문혜원(2) 박범진(2) 박병건(2) 박상준(2)
 박용훈(2) 박정민(2) 박지현(2) 배재수(2)
 서동욱(2) 설대호(2) 신성아(2) 신인아(2)
 엄민애(2) 오형균(2) 유경희(당산3) 유해국(2)
 이동하/한귀남(2) 이란희(2) 이상희(2)
 이승영(1) 이승희(2) 이양훈(2) 이중수(2)
 이지영(1) 이행남(2) 이호열(2) 임익삼(1)
 임정리(2) 장수관(1) 정길순/박지양(2)
 정해숙(2) 조명순(2) 조규영(2) 주우익(2)
 최수진(2) 최원진(2) 한진숙(2) 현승혜(2)
 홍영일(2) 홍혜경(2)

이상 5,000원

(주)상정무역(2) (주)영화의료기(2)
 강석보(2) 강인호(2) 강희정(2) 구다원(2)
 구영현/구인복(2) 구자석(2) 권수영(2)
 권오원/주은혜(2) 권인순(2) 김경민(2)
 김경석(2) 김교일(2) 김기석(2) 김남중(2)
 김동진(1) 김동현(1) 김려원(2) 김민수(2)
 김범수(2) 김보경(2) 김상순(2) 김석미(2)
 김수리(2) 김영지(2) 김옥남(2) 김완섭(2)
 김용남(효창2) 김용선(2) 김윤대(2) 김윤숙(2)
 김은숙(2) 김은자(2) 김인숙(부산2) 김자경(2)
 김재환(2) 김정욱(1) 김중용/전정원(2)
 김준형(2) 김진원(안산2) 김철희(2) 김학철(2)
 김한영(2) 김향(2) 김현준(2) 김형배(2)
 김형식(2) 김화중(2) 김홍규(2) 나효진(2)
 노현욱(2) 류희수(2) 민경양(2) 민운기(2)
 민준홍(2) 박갑수(2) 박경남(2)
 박상준(의정부2) 박선영(2) 박순화(2)
 박영호(2) 박영희(2) 박윤미(2) 박인자(2)
 박일현(2) 박중성(안양2) 박지숙(2)
 박지훈/정선희(2) 박태진(2) 박혜정(2)
 박희정(2) 방계영(2) 방상호(2) 배경미(2)
 배춘숙/김신근(2) 백지웅(1) 서동범(2)
 서동원(2) 서미란(2) 서영란(2) 석지민(2)
 석지은(2) 석창록(2) 성경희(2) 송기영(2)

이희재(2) 조윤식(2)
이상 20,000원

강재철(2) 김계영(1) 김은경(2) 김홍현(2)
 민유숙(2) 민정범(2) 박상우(1) 박용길(2)
 신화웅(2) 오청근(2) 윤경자(무악3) 이관희(2)
 이상길(2) 이선희(2) 이종빈(2) 이희달(2)
 임용재(2) 장혜실(1) 정병배(2) 홍성관(2)
 황영배(2)

이상 30,000원

박종성(2) **35,000원**

고명지(2) 서판임(2) **이상 40,000원**

김은영(2) 김은주(2) 김의규/구자명(2)
 김지웅(2) 김현수(2) 민택산업/남기백(3)
 RTX스포츠(2) 엄혜령(2) 오명희(2) 유시영(3)
 이정숙(2) 이종우(2) 최혜자(2)

이상 50,000원

((주)우석엘리베이터(2)
 (주)힐로피아/김유제(2) 강무진(2) 구태연(2)
 김윤희(2) 박지연(2) 안성환(2) 오선환(2)
 여재형/신지영(2) 오정선(2) 이승수(2)
 이영숙(2)

이상 100,000원

채진석(2) **150,000원**

뉴라이프교회(명지춘혜)(2) **900,000원**

<휠체어날개달기>

전교수(2) **이상 3,000원**
 조성우(2) **이상 5,000원**

고은미(2) 고은순(2) 객재욱(1) 권은희(2)
 김계호(1) 김동현/김승기(2) 김명석(2)
 김서주(2) 김소하(2) 김순영(2) 김순이(2)
 김영숙(2) 김용환A(2) 김이태(2) 김정애(2)
 김정자(2) 김정태(2) 김진모(2) 김창복(2)
 김태윤(2) 김현숙(노원)(2) 김혜숙(2)
 남향숙(2) 민혜영(2) 박만수(2) 박미애(2)
 박수경(2) 박신용(2) 박신자(2) 박옥자(2)
 백마강(2) 백순정(2) 서정숙(2) 서판임(2)
 신승엽(2) 안종필(2) 안지민(2) 안지우(2)
 양노식(2) 오남숙(12) 유은수(2) 윤민정(2)
 이가영(2) 이광호(2) 이상분(2) 이영분(2)
 이은영(2) 이은희(2) 이자영(2) 이창욱(2)
 이재숙(2) 이지수(2) 이진수(2) 이해령(2)
 이현경(2) 이형재(2) 이해선(2)
 이희승/김향련(2) 임연하(2) 임찬예(2)
 임채영(2) 임현주(2) 장궁자(2) 장은솔(2)

장은수(2) 장일순(2) 장진석(2) 장화순(2)
 전도삼(2) 전영희(2) 전옥순(2) 전해경(2)
 정금숙(2) 정나원(2) 정안나(2) 정애리(3)
 정영순(2) 정우담/정원균(2) 정재갑(2)
 정재호(2) 정재희/주희(2) 정현목(2) 조용환(2)
 조혜숙(2) 최광원(2) 최우희(3) 최유경(2)
 최윤지(2) 최진숙(2) 추경은(2) 한정민(1)
 한충길(2) 한혜영(2) 홍경숙(2) 홍상문(2)

이상 10,000원

강윤희(2) 강인숙(2) 김경숙(2) 김덕길(2)
 김보경(1) 김일생(2) 김진형(2)
 김철상/이공이(2) 김효생(2) 박정경(2)
 송경자(2) 오문영(2) 이상희(2) 이해숙(2)
 장연우(2) 장지분(2) 장혜실(1) 장혜연(2)
 전승완(2) 정경호(2) 조민숙(2) 조수현(2)
 조승호(2) 최대우(2) 최명숙(2) 최정희(2)
 한광희(2)

이상 20,000원

(주)송지(2) 김옥수(2) 김옥주(2) 이태자(2)
 최진경(2)

이상 30,000원

(주)서버존(2) 강옥순(2) 김혜명(2) 박봉희(2)
 이승훈(2) 장영순(2)

이상 50,000원

박형상(2) **100,000원**
 변천섭(2) **200,000원**

<한뼘동지>

고현우(2) 공아영(2) 곽희수(1) 권명현(2)
 길현(1) 기호순(2) 김계자(2) 김남제(1)
 김민서(2) 김승빈(2) 김용락(1) 김인경(2)
 김재열(2) 류민경(2) 마은영(2) 맹덕섭(2)
 문소현(2) 박미현(2) 박지숙(2) 박창범(2)
 서정민(2) 송효림(2) 심상우(2) 양윤희(2)
 양인희(2) 여희숙(2) 오현숙(2) 우지영(2)
 육순우(2) 이현주(2) 이해란(2) 임경숙(2)
 임정혜(2) 정민영(2) 정선희(2) 정정임(2)
 조상은(2) 조은미(2) 최은미(2) 한경희(2)

이상 5,000원

강순기(2) 강유승(2) 강인수(2) 강현(2)
 강훈선(2) 고유미(2) 곽봉현(2)
 광영한/장형기(2) 구성모(2) 구해림(2)
 권오준(2) 권지연(2) 김기래(2) 김면봉(2)
 김명순(2) 김명희(일산2) 김미애(2) 김미진(2)
 김병준(2) 김상수(2) 김석겸(2) 김선옥(2)
 김선향(2) 김성길(2) 김세연(2) 김수혜(2)
 김연주(3) 김영승(2) 김영진(2) 김예찬(2)

김우주(2) 김윤근(2) 김윤희(2) 김인곤(2)
 김인숙(2) 김인순(2) 김정석(2) 김태연(2)
 김혜정(2) 김호영(2) 남성현(2) 남진숙(2)
 노신규(2) 노영진(2) 류재남(2) 박리라(2)
 박상현(2) 박성준(2) 박용우(2) 박일현(2)
 박장훈(2) 박정숙(2) 박정신(2) 박정일(2)
 박지원(2) 박해진(2) 변기정(2) 변아름(2)
 서동연(2) 서민향(2) 서정민(상암)(2)
 서인숙(2) 성다혜(2) 소기자(2) 송옥진(2)
 송은숙(2) 송재하(2) 신동연(2) 안국희(2)
 안영미(2) 양용준(2) 양정현(2) 양향자(2)
 양현태(2) 여일규(2) 우기후(2) 우영순(1)
 우춘자(2) 오광진(2) 오성진(2) 원현선(2)
 유민화(2) 유윤미(1) 윤숙현(2) 윤정애(2)
 윤태훈(2) 이강전(2) 이경진(2) 이상수A(2)
 이상수B(2) 이성림(1) 이소정(2) 이송순(2)
 이옥순(2) 이은재(1) 이영순(2) 이용식(2)
 이재호(2) 이종욱(2) 이지영(2) 이태환(2)

이해순(2) 이해원(1) 이희권(2) 이희숙(동지2)
 인보광/박수빈/박혜빈(2) 임경철(2) 임진민(2)
 임진희(2) 장순주(2) 장영숙(2) 장진섭(1)
 장철만(2) 장현주(1) 전애스더(2)
 정다미/김재훈(2) 정영석(2) 정영진(2)
 정완교(2) 정재영(2) 정진하(2) 정향남(2)
 제갈윤(2) 조수연(2) 조인규(2) 채순옥(2)
 채영심(2) 천병수(2) 최경희(2) 최미정(2)
 최선영(2) 최순우(2) 최은미(서초2) 추지훈(2)
 하인석(2) 한지행(2) 황진숙(2)

이상 10,000원

강신순(2) 강희정(2) 김경란(2) 김미진(2)
 김성우(2) 김여은(2) 김희량(2) 문정희(2)
 박민희(2) 박승환(2) 백진선(2) 송선미(2)
 우영옥(1) 원석범(1) 유선민(2) 이병수(2)
 이선우/김연희(2) 이정림(2) 이지영(강서2)
 정현주(2) 조기택(2) 조은이(2) 지현정(2)
 진권(2) 채순옥(2) 하복덕(2) 한재형(1)
 한초덕(2) 한혜림(2) 함중수/한정옥(2)
 황민규(1)

이상 20,000원

권현정/김성철/김주영(2) 김계엽(2) 김연숙(2)
 김윤영(동지2) 박희수(2) 서민행(2) 성낙일(2)
 오법균(2) 윤일심(2) 이수경(1) 이웅기(2) 이재
 용(2) 임재창(2) 임혜숙(2) 정숙용(1) 정은영
 (2) 조길웅(2) 조병훈(2) 조은주(2) 채한석(1)
 최갑석(2) 황정현(2)

이상 30,000원

백승열(2) **40,000원**
 광형우(2) 권영수(2) 김간관(4) 김종호(2)

김한서(2) 윤미선(2) 이태균(2) 조성윤(2)
조항미(2) 홍영미(2)
이상 50,000원

열림교회(1) 유정자(2) 주지연(2)
이상 100,000원

김범준(1) **130,000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1) 하대주(2)
이상 200,000원

서강어린이집(1) **445,000원**

〈한벗동지와 함께하는 ‘윤광이의 하루’〉



박현민(2) **5,000원**

구인회(2) 김규백(2) 김선식(2) 김왕수(2)
김진아(2) 안성윤(1) 이광석(2) 이수희(2)
이종현(2) 이준구(2) 이탄희(2) 임건태(2)
전경락(2) 정형선(2) 최봉계(2) 홍원표(2)
이상 10,000원

강완정(2) 강진구(2) 박성용(2) 박영숙(2)
손병산(2) 이강우(1)
이상 20,000원

김경준(2) 김기수(2) 김선광(2) 이태희(2)
이상 30,000원

김혜원(2) 유경환(2) **이상 50,000원**

최수진(2) **이상 70,000원**

강은모(2) 오유인(2) 이준구(2) 차성안(2)
이상 100,000원

〈주간보호센터〉

김운수(2) 조승현(2) **이상 5,000원**

김미영/허규민(2) 김세훈(2) 김인기(2)
박채련(2) 양영춘(2) 윤준호(2) 이경주(2)
이경화/이기훈(2) 이수경(2) 이호식(2)
정미숙/박성수(2) 차경옥(2) 한정환(박종미)(1)
이상 10,000원

김민정(2) **15,000원**

김정훈(2) 김중범(3) 신호숙(2) 심진섭(2)
엄해경/김근일(2) **이상 20,000원**

신두철(2) 안소영(2) 오선주(2) 이원재(2)
한정환(한가현)(2) **이상 30,000원**

신현관(2) 장안태(2) 홍지웅(2)
이상 50,000원

김현진(2) **100,000원**

통권 제 293호
발행일:2023년 1월 10일
발행인:최명숙 제작:한벗재단
주소: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42-3
TEL:(02)393-0661(대)
MOBILE:010-6747-0661
FAX:(02)712-6093
이메일:hanbeotorg@hanmail.net
홈페이지:www.hanbeot.org

한벗재단 임원

법인이사:최명숙(이사장) 장우형(부이사장)
김윤원 김정희 김혜명 윤승모 채진석
유형진 유시영
법인감사:강만희 김훈
운영위원회:백진영(회장) 권진동 김자희
김현숙 엄해경 이경화

부서별 연락처

한벗동지:02)336-3100
주간보호:02)713-5050
휠체어기증본부:02)713-1005
한벗투어:02)702-1515
고양시 지축종합사회복지관:02)381-8938

22년 10 ~ 11 월 재 정 보 고 (2개월 합산)

(단위:원)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기 부 금	정기(재단)	13,266,000	인건비	급여/퇴직/보험	22,215,084
	특별후원금	4,989,000	시설지원	등지/주간/지축	11,745,000
	미국교민후원	3,497,662	운영비	수용비/여비 등	8,596,918
	등지/주간	7,225,000	업무비	직책보조비 등	1,260,400
	날개달기기금	5,546,000	간행비	소식지제작/발송	1,495,000
	방정환기금	2,154,200	공공요금	재산세 포함	3,024,650
	마안마센터건립	1,000,000		날개달기	3,896,000
임대수입	중계기 임대료	7,854,000		방정환기금	2,111,000
	전세보증금 인상	6,960,000	사업비	미안마유아차선적	3,925,020
사업수입	장애인차량대여	1,700,000		장애인여행지원	2,730,000
모금	같이가치 모금	4,392,600	상환금	원금/이자	4,964,875
차입금	내부	7,000,000			
기타	잡수입	535,183	합계		65,963,947
총계		66,148,345	잔액		184,398



까치

그녀의 날개에는 언제나

지난 해의 잔설이 남아 있다.

- J 르나르의 자연이야기에서

그림 : 백남호

사 람 세 상

돈 뿌리는 날

지난 11월 초 밤 10시, 양곤의 번두리 도로를 차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앞서 가던 자동차에서 창문 밖으로 뭔가 희뿌연 봉투를 뿌리자, 어디선가 사람들이 나타나 길에 떨어진 봉투를 천천히 줍고 있었다.

“저거, 뭘 뿌린 거지요?”

“돈이 예요. 아마 1,000이나 10,000차트짜리일 겁니다.”

1,000차트면 우리 돈 700원, 10,000차트면 7,000원이다. 미얀마의 가게 일꾼 월급이 우리 돈 6~7만원이니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다. 자동차가 가난한 동네로 접어들었다. 가로등 없는 컴컴한 길가에 사람들이 드문드문 서있다.



“이 시간에 길에 웬 사람들이지요?”

“돈 주우러 그러합니다.”

“돈! 무슨 돈이요?”

“뽀따구 때는 길가에 몰래 돈을 놓아요. 아무나 주워가라고요.”

뽀따구란 ‘아무나 가져가라.’는 뜻이다. 길에 놓은 돈 봉투 찍은 사진을 보고 또 한 번 감탄했다. 물에 젖지 않게 한 장, 한 장 비닐로 정성스레 싸놓지 않았는가!

뽀따구는 11월 첫 보름달이 뜬 다음 날이다. 달이 밝아 늦은 밤에도 길에 놓은 돈 줍기 편하라고. 뽀따구는, **‘기부하는 이는 받는 사람을 알 수 없게, 받는 사람은 누가 기부했는지 모르게’** 해야 한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하나같이 지키는 오랜 풍속이란다.

돈을 서로 모르게 주고받기! 돈이 더없이 아쉬운 가난한 나라에서, 사람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성찰을 흐뭇한 풍속으로 이어오고 있다. 실제로 미얀마는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살지만, 기부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이다(기부율 세계 1위). 또 자살하는 사람이 가장 적다.

돈 많은 나라에서 사는 자신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 〈한벗 후원계좌 안내〉 • 한벗재단 국민 763601-04-002564 • 휠체어날개달기 국민 763601-04-095562
 • 한벗동지 국민 577301-01-127870 • 한벗주간보호센터 국민 763601-04-078400 • 방정환기금 국민 640601-04-006175
 • 고양시지축종합복지관 농협 351-1206-0089-03